

유령 인간

학창 시절 나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존재들이 내뿜는 왕성한 에너지는 겉으로 봐서는 생기 넘치고 싱그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적이 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열기는 맹수처럼 잔혹했고, 과시적이었다. 또 여럿이 모일수록 힘의 동원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설부른 반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의 눈치는 있었다. 돈을 원하면 어머니께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받은 용돈을 갖다 바쳤고, 학교라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에 시비 걸 상대가 필요하면 기꺼이 샌드백이 되어 줬다. 착하게 자라야지, 말씀하시던 어른들의 바람처럼 나는 착하고 얌전하게, 일명 '공식 짜질이'의 말은 바 임무를 다한 것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한 대 얻어맞으면 너도 똑같이 한 대 정도는 같기라고. 그게 '공평'이라고. 뺨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쓰레기통 취급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렸지만, 거인들의 발길질에 대항하기엔 나는 겁 많고 물렁한 소형 불개미였다. 밤마다 칼을 든 괴물에 쫓기는 악몽을 꿴다. 새로 산 교복 카디건이 또 찢어졌으니 손대지 말아 달라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탓에 구중이 잦아졌으니 제발 빼앗지 말아 달라고. 푸르뎅뎅한 멍 자국처럼 내 속도 망가지고 있으니 그만 멈춰 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전달되지 못한 채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사춘기 소녀의 멍을 쥐어 잡고 흔들어댔다. 그렇게 나의 학창 시절이 지나갔다. 아니, '견뎌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불행한 기억 꼬리표'는 주홍 글씨처럼 생채기 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끈질긴 괴롭힘이었다. 덕분에 나는 성인이 돼서도 '인간 공포증'에 시달렸다. 희망적인 사실은 대학을 갔고, 마땅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빵 코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불행은, 면접만 보러 가면 학창 시절 맹수들이 불현듯 출현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답변을 준비하는 내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머릿

속을 뒤흔들고, 생병어리로 만들었다. 그리고선 '광속탈락'이라는 패배자 딱지를 선사해 줬다. 면접장을 떠나는 머리채를 움켜잡고, 꼭 다문 입술에 수갑을 채워 사춘기 감옥살이 시절로 다시금 데려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이라는 게 필수 조건처럼 따랐다.

문예창작학과를 전공한 내게는 자기소개서 첨삭 부탁이 종종 들어왔다. 비평에 한해서는 섬세하고 꼼꼼한 면모가 있었던지라 그리 까다로운 일은 아니었다. 의뢰를 받고, 메일로 파일을 전달받고, 검토 후 다시 전달한다. 두세 번의 피드백이 오간다. 소정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대략 이런 코스였다. 나는 점점 분야를 넓혀갔다. 주변의 소개를 받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재능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내 존재를 알렸다. 취업준비생 자기소개서, 대학생 리포트, 대학원생 논문, 중고등학생들의 논술문까지. 그야말로 뜻밖의 창조경제였다.

그렇게 나는 첨삭 및 교정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다. 직업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자면 90점 이상. 직접적인 만남 없이 타인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비문을 바로잡고 실용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법,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법, 은유를 글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법 등. 조연자로서 또 어느 순간에는 벼으로서 덩어리 같은 고민을 꺼안고 있는 의뢰인들의 새벽을 지켜 줬다. 퇴고 과정을 겪을수록 더 좋은 글이 탄생하듯이 당신도 치열하게 성장할 거라 말해 줬다. 그러면서 내 족쇄 같은 어린 시절 상처까지도 함께 게워냈다. 내 일을 사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혹은 늘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따뜻한 악수를 건네며 아주 달콤한 계획을 들려줬다. 전(前) 의뢰인에게 연락이 온 건 마감일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개인 과외 식으로 독서논술을 지도했던 학생의 어머니였다. 외고 진학을 희망한다는 소식과 함께 꺼낸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러했다.

'외고 진학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이가 공부 머리는 있는데 글솜씨가 없다.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다. 나머지를 맡아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엔 흔쾌히 작성본을 보내면 조언을 덧붙여 드리겠다 대답했다. 노골적이면서 구체적인 요구가 돌아왔다.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가 쓰는 법을 몰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대신 써주셨으면 좋겠다.'

두 배의 비용이 제안으로 들어왔다.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다. '손님 가려 받으면 일 끊긴다'라는 자영업계의 암묵적 징크스가 번뜩였다. 소개로 이어질 예비 고객들이 머릿속에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다.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파동은 오랜 시간 방패처럼 쌓아 올린 '신념'이라는 철벽에 망치질을 했다. 세 사람만 입을 다문다면 남들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만 금이 갔다. 분필 가루 같은 모래 양심이 새어 나가기에 적당한 크기의 틈이었다.

"잠시 생각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단 끊긴 휴대폰이 유혹의 손바닥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솔깃한 제안이었다. 또 다른 창조경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거기서 거기' 식의 조언하기 업무가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끈질긴 피드백과 퇴고 요구에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에 지쳐 있었다. 더 솔직하게는, 수입이 불안정했고 또 적었다. 슬슬 직급을 달게 된 또래들이 경주마를 타고 활주하듯 달릴 때, 나는 시속 10km 속도로 가는 당나귀 위에 탑승해 있었다. 이미 대필업체들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터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일

이러지만 순수한 행복에 뛰어드는 일에 어떠한 고위험이 따르는지, 정답은 없고 무수한 해답만 있는 일에 가산점 없이 평가받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힘쓰는 것보다 내가 유령이 되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일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점점 느는 도둑질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동기 A에게 연락을 했다. 한때 순수문학을 꿈꿨고, 문과생이라는 업보로 바늘구멍 취업문에 튕겨 나뒹굴어진, 내 갈등과 갈등을 이해해 줄 유일한 친구였다. 실은 조연을 핑계 삼아 내 편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는 요량으로 건 전화였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참에 대필 작가로 활동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거라고. 속내를 내비치자 뜻밖에 격양된 대화가 오갔다.

A- 소설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책을 내면서 뒤에서는 대필자를 고용한다면 그건 사기 행위다.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나- 모든 사람에게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는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다.

A- 그 관계가 저작자 권리까지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초래한다면?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창작자 권리를 훔치는 행위다. 대필 작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대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일명 유령작가. 물론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조건으로 글쓰기 능력을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실 저작권까지 이양되는 건 아니다. 실 저작자임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뿐. 나는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의뢰인이자 창작자들에게 즐기게 한 이야기가 있다. 모든 창작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체는 그 권리 아래 보호 받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용하여 공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식같이 여겨야 한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려는 권리의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내가 유령이 되어 그 책임감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쓴 글도 좋은 글이지만,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건 오직 OO이뿐입니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냉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도, 규정이랄 것도 없다. 그렇기에 '이 정도 유리함을 취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개개인의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양심 지정선이 그어진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유령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택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순수한 행복의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